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음 6월 28일) 제33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즐거운 작별… 전북대서 잼버리 사후 ‘JB-스카우트의 밤’

대원들 ‘행복한 축제의 밤’ 연출

7개국 500여명 참여
도립국악원 전통공연
DJ 퍼포먼스 등 다채

김관영 지사도 함께하며
스카우트 대원들 격려

지난 12일 전북대 학술문화관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후 관광프로그램인 ‘JB-스카우트의 밤’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국 500여명의 대원들이 공연을 보며 축제의 밤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지난 11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을 끝으로 새만금세계잼버리의 공식 일정이 끝난 가운데 전북은 사후 ‘JB-스카우트의 밤’ 행사로 잼버리의 열기를 이어갔다.

전북도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후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전북대 학술문화관에서 사후 ‘JB-스카우트의 밤’ 행사를 열고 잼버리 대원들과 즐겁게 작별했다고 밝혔다.

사후 ‘JB-스카우트의 밤’은 ‘사후 전북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해 도내에 숙박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 7개국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준비한 도자체 특별 프로그램이다.

전북도는 지난 8일 정부의 태풍대비 대피조치가 이루어지며 조기 퇴영이 이루어진 만큼 참가대원을 격려하고 한국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전통공연(풍장, 동이놀이)과 디제이(DJ) 퍼포먼스, 케이팝(K-POP)댄스 무대와 함께 13일 특별 게스트로 케이팝 스타 ‘소녀세상’ 등이 출연했다.

또한 전통체험, 케이(K)-뷰티, 케이팝(K-POP)댄스 배우기 프로그램 등 문화체험 부스 프로그램이 운영돼 한국·전북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렸다.

사후 JB-스카우트의 밤 행사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케이컬처(K-Culture)e 중심지인 전북에서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장 전북다운, 가장 한국적인 볼거리와 놀거리를 마음껏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에서 폐영식을 마치고 JB-스카우트의 밤 행사를 찾아 준 스카우트 대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시간동안 전북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으라”고 환송의 말을 전했다.

한편, 사후 JB-스카우트의 밤 행사에는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과 서거석 도교육감도 참석해 전북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은 전북 사후 관광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14일까지 전북 관광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성료

백영주·최형준·노스탤지어·백미현·박영일 이태원 등 무대 위에 올라 추억·감동 선사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풍미했던 포크송. 그 시절에 포크송을 연주했던 통기타 명인들의 기타 선율은 금요일 밤을 감미롭게 했다.

지난 11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가 열렸다.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사)전북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는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후원했다.

〈화보 16면〉

올해는 ‘국민 MC’ 서정우씨의 사회로, 백영주씨, 최형준씨, 노스탤지어, 백미현씨, 박영일씨, 이태원씨 등 통기타 명인들이 무대 위에 올라 한옥마을을 찾은 이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해줬다.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인사말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에 많이 와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11일) 이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아픈 역사 반복되지 않길’

전주시민갤러리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
‘희망나비와 함께’ 퍼포먼스 진행… 기록물·작품 전시

‘희망나비와 함께’ 퍼포먼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지난 11일 전주덕진공원 내 전주시민갤러리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도내 여성작가 5인의 작품 전시와 정의기억연대의 기록물 전시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에 전시된 벽화에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메모를 부착하는 ‘희망나비와 함께’ 퍼포먼스가 개최돼 참석한 도민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의 부제인 ‘기억에서 희망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노력해 온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11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다양한 전시와 함께 평화나비 뱃지만들기, 희망나비 팔찌만들기 등의 무료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식은 광복회 전북지회 이강안 지부장, 전북겨레하나 김은경 이사장,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과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북도민 등이 참여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추모사에서 “8월 14일은 긴 시간동안 평화와 인권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분들과 이를 기리기 위해 애써 온 여러 분들의 노력과 외침의 결과이다.”며, “이번 추모행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되나

문화재청, 17일 지정 예고… 의견 수렴·심의 후 10월 최종 지정

부안 위도면에 위치한 대월습곡의 모습.

부안군 위도면 진리 대월습곡이 지질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오는 17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될 전망이다.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1에 위치한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은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지층들이 퇴적과정 중 독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횡와습곡으로, 백악기 이전에 형성된 우리나라 일반적인 대형습곡과 달리 백악기 이후에 만들어진 습곡으로 그 배경이나, 시기, 구조 등이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또한 뚜렷한 지층 경계로 이루어진 지름 40m 가량 횡와습곡의 거대한 원형구조가 주위 환경과 어우러지는 경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17일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문화재청 지정심의 후 10월에 최종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지정예고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에 오는 17일에 게시되며 30일 이내에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8월 15일 광복절 관계로
16일자까지 신문 쉽니다.